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창세기 29 주차 (창 24:22~67)

(2016년 7월 3일 - 2016년 7월 9일)


(제 4 권 29 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ORY 제 4 권-제 29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6 년 7 월 3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전환점에 선 리브가 (주일)

오늘의 본문 (창 24:22~25)

- (22 절)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고 난 후에 (וַיְהִי כִּשְׁמֹרֶת כָּל־וַיִּשְׁקוּ כָּל־הַגָּמְלִים לְשֵׁי־תַיִם) 그 사람은 0.5 세겔 되는 금 코걸이와 10 세겔 되는 손목고리 2 개를 그녀의 손에 주었습니다. (וַיִּקַּח הָאִישׁ גֶּזֶם זָהָב בְּקַע מִשְׁקָלָו וְשְׁנֵי צְמִידִים עַל־יְדָיָהּ עֶשְׂרֵה זָהָב מִשְׁקָלָם)
- (23 절) 그가 말했습니다. (וַיֹּאמֶר) 네가 누구의 딸이냐? (בַּת־מִי אַתְּ) 내가 하루 밤을 머물 수 있는 곳이 네 아버지의 집에 있는지 나에게 알려 달라. (הֲגִידִי נָא לִּי הַיּוֹשֵׁב בְּבֵית־אָבִיךָ מָקוֹם לָנוּ לָלוֹי)
- (24 절)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וַתֹּאמֶר אֵלָיו) 저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브두엘의 딸입니다. (בַּת־בְּתוּאֵל אֲנֹכִי בֶן־מִלְכָּה אֲשֶׁר יָלְדָה לְנָחוֹר)
- (25 절)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וַתֹּאמֶר אֵלָיו) 우리에게 충분한 짚과 사료가 있고, 또한 하룻밤을 머물 곳도 있습니다. (גַּם־תִּבְנוּ גַם־מִסְפּוֹא רַב עֲלֵנוּ גַם־מָקוֹם לָלוֹי)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리브가는 부지런히 물을 길어 날랐다. 좋은 묵묵히 리브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낙타들이 모두 물을 마시고 나자 드디어 리브가는 할 일이 끝났다. 아니 아브라함의 종의 기다림이 끝났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일 것이다. 좋은 신부에게 주려고 준비해 온 반 세겔의 금 코걸이와 10 세겔 되는 손목고리 두 개를 그녀에게 주었다. 종이 리브가에게 묻는다. “네가 누구의 딸이냐? 네가 하루 밤을 머물 수 있는 곳이 네 아버지 집에 있는지 나에게 알려 달라.” 리브가는 자신을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브두엘의 딸” 이라고 소개했다.

좋은 다소 성급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녀에게 예물을 주었다. 그가 리브가에게 준 예물은 단순한 호의의 표시가 아니라 약혼 증표의 일종이다. 그것을 받은 여인은 약혼녀가 되는 것이고, 조만간 신랑이 와서 그를 데리고 갈 거라는 뜻이다. 당시의 결혼 풍습에 따르면 신랑이 맘에 드는 신붓집을 찾아가 신부에게 약혼 예물을 주고 신부의 부모에게 지참금을 지급함으로써 약혼이 성립된다. 예비 신랑은 약혼을 하고 하룻밤을 신붓집에 머문 후 그 다음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후에 신랑은 신부를 위한 처소를 마련한 후 다시 신붓집으로 가서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옴으로써 결혼이 성사된다. 따라서 약혼은 사실상의 결혼과 마찬가지로 효력을 지닌다. 신랑이 피혼을 요구하지 않는 한 신부는 어떤 사유로도 결혼을 취소할 수 없다. 이미 결혼할 나이가 다 된 리브가도 이 정도는 상식으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물가에 낙타와 함께 쉬고 있던 한 남자가 자신에게 코걸이와 손목고리를 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결코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사양도 하지 않고 덤석 받았다. 물론 리브가가 그 종을 자신의 배우자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남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았어도 그가 예비 신랑의 대리자 자격으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음에 틀림이 없다.

선뜻 약혼예물을 받은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충분한 짚과 사료가 있고, 또한 하룻밤을 머물 곳도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미 그를 영접하여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했다. 이제 부모의 허락만 떨어지면 혼인이 성사될 것이다. 리브가가 물을 길으러 물동이를 지고 집을 나올 때만 하더라도 결혼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얼른 물이나 길어 와서 저녁 밥을 지을 요량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다. 그녀의 손에는 혼인 예물이 쥐어져 있고, 자신을 신랑의 집으로 인도할 아브라함의 종이 그녀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네 삶도 그렇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 인생을 계획하면서 그 계획대로 삶이 흘러가길 기대한다. 특히나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고 행복해 하는 사람들은 현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며 산다. 반대로 현실이 너무 힘들어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들은 어떻게든 상황을 바꾸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인간은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면 상황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에게 평지풍파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간힘을 써도 해결되지 않던 일들이 신기할 정도로 술술 풀려 나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그것이 인생이다.

리브가는 집을 나설 때와 집으로 돌아갈 때 전혀 다른 꿈을 꾸었을 것이다. 집을 나설 때에는 집안 식구들을 위한 맛있는 저녁 요리에 온통 신경을 쏟았을 것이다. 어쩌면 음식 재료와 레시피에 관해 고민하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자신이 정성껏 요리한 음식을 식구들이 맛있게 먹으며 즐거운 애기로 하루를 마감하는 행복한 꿈을 꾸며 우물가로 오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들이 모두 사라지고 자신에게 예물을 보낸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 도대체 어디사는 누구길래 잘 알지도 못하는 자기한테 이런 약혼 예물을 주는 걸까? 오만 가지 생각들이 그의 머리속을 채웠을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차대한 결혼이라는 문제를 앞둔 리브가는 얼마나 설레었을까?

리브가의 인생에 펼쳐진 드라마 같은 이 장면을 보며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 어떨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어느 시점에선가 예수님이 주시는 약혼 예물을 받고 설렐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감히 단언하건데 그 일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감동적인 사건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신부로 점찍어 두셨고, 혼인 예물로 성령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사느라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 한 번 못하고 살던 그대에, 어느 날 문득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오셨다. 아무런 기대도, 준비도 하고 있지 않던 우리에게 엄청난 예물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라는 처소까지 준비해 두셨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신부로서의 자격을 따지자면 우리는 그 무엇도 내세울 게 없다. 그런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을 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꿈도 달라지고 세계관도 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사건은 그 무엇보다도 중차대한 일생일대의 사건인 것이다. 과연 당신은 삶에서 그것을 경험했는가?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에게는 언제, 어느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 오셨습니까? 그분이 찾아오셔서 당신에게 무엇을 예물로 주셨나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나요?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24:26~30)

- (26 절)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וַיִּקַּד הָאִישׁ וַיִּשְׁתַּחוּ לַיהוָה)
- (27 절) 그가 말했습니다. (וַיֹּאמֶר)
-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בָּרוּךְ יְהוָה)
-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אֱלֹהֵי אֲבוֹתַי)
- 내 주인에게 그의 자비와 그의 성실하심을 끊지 않으신 [여호와를],
- (אֲשֶׁר לֹא-עָזַב חֶסְדּוֹ וְאַמְתּוֹ מֵעַם אֲדָנָי)
- 여호와께서 나를 길에서 인도하여 내 주인 형제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 (אֲנֹכִי בַדְרָךְ נִסְחֵי יְהוָה בֵּית אַחֵי אֲדָנָי)
- (28 절) 그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들을 그녀의 어머니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 (וַתָּרֵץ הַנַּעֲמָה וַתַּגִּד לְבֵית אִמָּהּ כְּדִבְרֵי הָאִלֶּה)
- (29 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라반이었습니다. (וּלְרִבְקָה אָח וּשְׁמוֹ לָבָן)
- 라반은 우물에 있는 그 사람에게 달려 나갔습니다. (וַיָּרֵץ לָבָן אֶל-הָאִישׁ הַחוּצָה אֶל-הָעֵיץ)
- (30 절) 라반이 그의 여동생 손의 코걸이와 손목고리를 봤을 때,
- (וַיִּהְיֶה כִּרְאֹת אֶת-הַנָּגָם וְאֶת-הַצְּמָדִים עַל-יָדָי אַחֲתִי)
-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여동생 리브가의
- 말을 들었을 때, (וּכְשָׁמְעוּ אֶת-דִּבְרֵי רִבְקָה אַחֲתוֹ לְאִמָּר כֹּה-דִבְרַר אֵלַי הָאִישׁ)
- 라반은 그 사람에게 갔고, 그 때 그 사람은 우물가 낙타들 곁에서 있었습니다.
- (וַיָּבֹא אֶל-הָאִישׁ וַהֲגִה עֹמֵד עַל-הַגְּמָלִים עַל-הָעֵץ)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이 놀랍고 신기하기까지 했을 것이다. 그가 상상하며 기도한 그대로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 마치 잘 짜여진 각본대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았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기도는 리허설이나 다름 없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싱겁게 끝났다고 생각될 정도다.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는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앞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처럼, 신랑이 아닌 늙은 대리인에 불과한 자기 말만 믿고 선뜻 신부로 따라 나간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 일은 하나님이 나치지 않으신다면 절대로 성사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의 고민은 단지 기우에 불과했다. 리브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종이 기도한 그대로 일을 척척 해냈고, 약혼의 증표도 아무런 고민없이 덥석 받았다. 그리고는 선뜻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주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종은 머리를 숙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렸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주인에게 그의 자비와 그의 성실하심을 끊지 않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길에서 인도하여 내 주인 형제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창 24:27).

종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자비’ ‘성실하심’ ‘길의 인도자’로 묘사한다. 종은 나이가 많고 늙었다. 아마도 어릴 적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인지 그는 누구보다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아브라함을 보필하면서 그의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호와와 손을 직접 목격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막연한 지식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실제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그 역시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불임이고 아이를 낳을 소망이 없던 여 주인 사라의 태를 열어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를 보호하셔서 나그네요 이방인인 그를 도리어 가나안 원주민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후손을 주시고, 객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아브라함을 우월한 존재로 만드신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자신이 기도했던 그대로 역사하시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그 자신도 하나님의 성실함과 자비를 체험했음은 물론이고, 자신이 가는 길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얼마나 절절히 체험했겠는가? 솔로몬은 잠언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자유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모든 일이 자신의 뜻하고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론 원치 않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원치 않는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 그렇기에 위의 잠언 말씀을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돼 있다는 뜻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간의 삶은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끄시면 누구든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아브라함이 그랬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삶을 평생 목격하고 살아 온 종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은 하나님이 이삭의 신부를 예비해 두셨다는 데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이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대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임을 이번 일로 또 다시 체험한 것이다.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족들에게 말했다. 그녀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라반이다. 라반은 동생에게 일어난 일의 자초지종을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려 있는 금코걸이와 손목고리를 보았다. 라반은 자기 여동생에게 매우 중대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다름아닌 약혼의 증표이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자기 동생 리브가를 신부로 맞이하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인지 궁금했다. 라반은 마음이 급해져서 동생의 이야기를 더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우물가로 달려갔다. 여기서 ‘달려갔다’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루스’ (רוּס)다. 저자는 여기에서 이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다. 루스라는 동사는 창세기에 총 10번 나오는데 그 중에 우물가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에서만 4번(17, 20, 28, 29 절)이나 쓰였다. 종이 리브가에게 ‘달려갔’고, 리브가가 낙타들에게 먹일 물을 걷기 위해 우물로 ‘달려갔’으며, 리브가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알리기 위해 가족들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기 위해 우물로 ‘달려갔다’. 이 단어가 쓰인 상황을 보면 모든 일이 매우 급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루스의 영어식 표현은 러쉬(rush)다.) 성경을 보면 평화롭고 한가하던 나홀의 성이 갑자기 분주해졌다. 여러 사람들이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잔잔하던 호수에 큰 파도가 일어난 것처럼 말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일 때문에 모든 사람

의 마음이 분주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바로 리브가를 언약의 자손을 낳을 이삭의 신부로 데리고 오는 일이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갑자기 삶이 분주해진다. 무언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때론 바쁘고 복잡해 보이기까지 한다. 쳇바퀴 돌리듯 익숙한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갑자기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낯설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 낯섬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렇기에 삶 속에서 익숙한 일상의 것이 무너지고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사건이 우리들 시각으로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전혀 상관없다. 그 사건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고 계시다는 것에 주목하기 바란다. 이날 저녁에 일어난 일이 그랬다. 늘 그러했듯이 해질 녘 물을 길으러 우물가로 갔던 리브가는 이 일로 그의 인생 행로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당신의 삶에도 그런 날이 있었는가? 그때가 언제였는가?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의 삶에도 예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이 있었나요? 그 일이 당신의 인생 행로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는 중입니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24:31~49)

- (31 절) 그가 말했습니다. (וַיֹּאמֶר)
 들어오십시오. 여호와와 복을 받은 자여, (בוא ברוך יהוה)
 왜 밖에서 계십니까? (למה תעמד בחוץ)
 제가 방과 낙타를 위한 곳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וְאֲנִי פָנִיתִי הַבַּיִת וּמְקוֹם לְגַמְלִים)
- (32 절) 그사람이 라반의 집으로 들어갔고, 그 낙타들의 짐을 내렸습니다.
 (וַיָּבֹא הָאִישׁ הַבְּיָתָה וַיִּפְתַּח הַגְּמָלִים)
 라반은 낙타들에게 짚과 사료를 주었고, (וַיִּתֶן תֶּבֶן וּמִסְפּוֹא לְגַמְלִים)
 그의 발과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었습니다.
 (וּמַיִם לְרַחֵץ רַגְלָיו וְרַגְלֵי הָאֲנָשִׁים אֲשֶׁר אִתּוֹ)
- (33 절) 라반은 그사람 앞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וַיִּשֶׂם לְפָנָיו לֶאֱכֹל)
 그사람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
 내가 나의 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을 것입니다. (לֹא אֲכַל עַד אֶם־דִּבַּרְתִּי דְבָרִי)
 라반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
 말씀하십시오. (דַּבֵּר)
- (34 절) 그사람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
 나는 아브라함의 중입니다. (עֶבֶד אַבְרָהָם אֲנִי)
- (35 절) 여호와께서 내 주인에게 큰 복을 주셨고, 그래서 그는 매우 부유해졌습니다.
 (וַיְהִי כֵן וַיְבָרֵךְ אֶת־אֲדֹנָי מְאֹד וַיִּגְדַּל)
 여호와께서 그에게 양과 소, 은과 금, 남종과 여종,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וַיִּתְּנוּ־לוֹ צֹאן וּבָקָר וְכֶסֶף וְזָהָב וְעֶבְדִּים וּשְׁפָחוֹת וּגְמָלִים וְחֲמֹרִים)
- (36 절) 내 주인의 아내 사라는 늙은 나이에 내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וַתֵּלֵד שָׂרָה אִשְׁתׁ אֲדֹנָי בֶּן לְאֲדֹנָי אַחֲרֵי זְקֻנָתָהּ)
 내 주인은 그의 아들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וַיִּתְּנוּ־לוֹ אֶת־כָּל־אֲשֶׁר־לוֹ)
- (37 절) 내 주인이 나와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וַיִּשְׁבַּעֵנִי אֲדֹנָי לֵאמֹר)
 너는 내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לֹא־תִקַּח אִשָּׁה לְבָנִי מִבְּנוֹת הַכְּנַעֲנִי אֲשֶׁר אֲנִי יֹשֵׁב בְּאֶרֶץ)
 대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라.
 (אִם־לֹא אֶל־בְּיַת־אָבִי תֵלֵךְ וְאֶל־מִשְׁפַּחְתִּי וְלִקְחַתְּ אִשָּׁה לְבָנִי)
- (38 절) 나는 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ל־אֲדֹנָי)
 만약에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אֲלֵי לֹא־תֵלֵךְ הָאִשָּׁה אַחֲרַי)
- (39 절)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לַי)
 내가 나아갈 때 내 앞에 계신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너의
 여정이 성공하도록 할 것이다.

- (41 절) (יְהוָה אֲשֶׁר-הִתְהַלַּכְתִּי לְפָנָיו יִשְׁלַח מִלְאָכָו אִתָּךְ וְהִצְלִיחַ דְרָכְךָ)
 내 족속 중에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라.
 (וְלִקְחֶתָּ אִשָּׁה לְבָנִי מִמִּשְׁפַּחְתִּי וּמִבֵּית אָבִי)
 너는 나의 맹세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אֲזַ תִּנָּקֶה מֵאֲלֹתַי)
 네가 내 족속에게 갔을 때, (כִּי תָבוֹא אֶל-מִשְׁפַּחְתִּי)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 주지 않더라도 (וְאִם-לֹא יִתְּנוּ לְךָ)
 너는 나의 맹세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וְהָיִיתָ נְקִי מֵאֲלֹתַי)
- (42 절) (וְאָבֹא הַיּוֹם אֶל-הָעַיִן וְאָמַר)
 오늘 내가 이 우물에 왔고, 말했습니다.
 (יְהוָה אֱלֹהֵי אֲדָנָי אֲבָרְכֶם)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וְהָיָה אֲלֵי יְעֶזְבֵּל)
 제가 가는 여정이 성공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 (43 절) (אִם-יִשְׁפָּט-נָא מִצְּלִיחַ דְרָכֵי אֲשֶׁר אָנֹכִי הֹלֵךְ עֲלֵיךָ)
 보세요, 저는 우물 곁에 서 있습니다.
 (הֲנִיָּה אָנֹכִי נֹצֵב עַל-עַיִן הַמַּיִם)
 젊은 여자가 물을 길으러 나올 때 제가 그녀에게 말할 것입니다.
 (וְהָיָה הָעֵלְמָה הַיְצֵאתָ לְשֵׂאֵב וְאָמַרְתִּי אֵלֶיךָ)
 네 물동이의 물을 조금 마시도록 허락하라. (הֲשִׁקִּינִי-נָא מֵעַט-מַיִם מִכֶּדֶךָ)
- (44 절) (וְאָמְרָה אֵלָי)
 그 때 그녀가 제게 말할 것입니다.
 (וְאָמַרְתָּ אֵלַי)
 마시세요, 그리고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גַּם-אֲתָהּ שָׂתָה וְגַם לְגַמְלֵיךָ אֲשָׁאֵב)
 (그렇다면) 그녀는 제 주인의 아들을 위해 여호와께서 정하신 여자가 될
 것입니다. (הוּא הָאִשָּׁה אֲשֶׁר-הִכִּים יְהוָה לְבֶן-אֲדָנָי)
- (45 절) (אֲנִי טָרַם אֲכַלֶּה לְדַבֵּר אֶל-לִבִּי)
 (그런데) 내가 마음속으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וְהָיָה רִבְקָה יֹצֵאתָ וְכִדָּה עַל-שִׁכְמֹתָ)
 리브가가 그녀의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물을 길으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וְתִרְדַּ הָעַיִנָּה וְתִשָּׂאֵב)
 그녀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길었습니다.
 (וְאָמַר אֵלֶיךָ)
 내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הֲשִׁקִּינִי-נָא)
 내가 마시기를 허락하라.
- (46 절) (וְתִמְהַר וְתִוְרַד כֶּדֶה מֵעֲלֵיךָ וְתִאֶמְרָ)
 그녀는 급하게 그녀의 물동이를 그녀에게서 내리고 말했습니다.
 (וְאָמַרְתָּ אֵלַי)
 마시세요, 또한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שָׂתָה וְגַם-גַּמְלֵיךָ אֲשָׁקֶה)
 그래서 내가 마셨고, 또한 그녀가 그 낙타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 (47 절) (וְאִשָּׁאֵל אֹתָהּ וְאָמַר)
 나는 그녀에게 물으며 말했습니다.
 (בֵּת-מִי אַתָּ)
 너는 누구의 딸이나?
 (וְתִאֶמְרָ)
 그녀가 말했습니다.
 (בֵּת-בְּתוֹאֵל בֶּן-נְחוֹר אֲשֶׁר יִלְדָה-לוֹ מִלְּךָ)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나홀의 아들 브두엘의 딸입니다.
 (וְאִשָּׁם הַנָּזִים עַל-אַפְּהָ וְהִצְמִידִים עַל-יָדֶיךָ)
 나는 그녀의 코에 코걸이를 그녀의 손에 손목고리를 걸었습니다.
- (48 절) (וְאָקֹד וְאֲשַׁתְּחֶנּוּ לַיהוָה)
 나는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나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וַאֲבָרָךְ אֱת־יְהוָה אֱלֹהֵי אֲבוֹתֵינוּ אַבְרָהָם)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 내 주인 형제의 딸을 택하도록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여호와를), (וַאֲשֶׁר הִנְחֵנִי בְדַרְךְ אֱמֶת לְקַחַת אֶת־בֵּת־אָחִי אֲדָנִי לְבָנוֹ)

(49 절) 이제 당신들의 자비로움과 신실함으로 나의 주인에게 행하려 한다면,

(וְעַתָּה אִם־יִשְׁכַּם לְעֵשִׂים הַסֹּד וְאֱמַת אֶת־אֲדָנִי)

나에게 말하십시오. (הִגִּידוּ לִי)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וְאִם־לֹא)

나에게 말하십시오. (הִגִּידוּ לִי)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וְאֶפְנֶה עַל־יְמִין אוֹ עַל־שְׂמָאל)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집으로 안내했다. 라반은 그가 리브가의 신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그에게 신랑에 준하는 대우를 하고 있다. 아마도 라반은 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는지 할아버지 나홀에게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옛날 고향을 떠난 큰 할아버지가 보낸 종이 그의 집을 찾아 왔다. 그것도 아들의 신붓감을 구하기 위해서 말이다. 지금 그 종이 자기 여동생 리브가를 약속의 자녀 이삭의 신부로 택했고 리브가는 약혼 예물까지 받아 놓은 상태다. 그는 종을 “여호와와 복을 받은 자”라고 불렀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라는 신의 부름을 받아 고향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고향에서 전설처럼 전해 내려왔을 것이다.

라반은 종을 ‘여호와와 복을 받은 자’라고 불렀다. 주인인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라반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 상세히 다 알고 있을 리 만무하다. 사실 아브라함의 삶은 이 세상의 복과는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아들 이삭을 손녀 뻘인 리브가에게 장가 보내려 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남들은 손자를 볼 뉘은 나이에 달랑 아들 하나를 둔 셈이니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복을 받은 자라고 볼 수는 없을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라반의 입술을 통해 아브라함을 ‘복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하든 그런 건 전혀 상관없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그 자체가 복이다.

라반은 이미 종을 위한 처소를 깨끗하게 청소해 두었다. 종뿐만 아니다. 낙타가 머물 장소 또한 깨끗하게 정리했다. 종과 낙타가 묵을 장소를 깨끗이 마련해 두었다는 것은 이미 혼인을 허락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는 라반의 집으로 들어갔고 낙타에 실린 짐들을 내렸다. 그러는 동안 라반은 긴 여행에 지친 낙타들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리고 그 종과 그와 함께 온 사람들에게 발 씻을 물도 떠다 주었다. 라반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다. 이제 약혼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식사를 미루었다. 종은 무엇보다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을 확실히 해 두는 게 매우 중요했다. 아무리 긴 여행에 지치고 힘들다고 주린 배부터 채우는 건 아니다 싶었다. 먼저 할 말이 있으며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어떻게 들으면 대접하는 측의 호의를 무시하는 행동일 수도 있을 텐데 말이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 중요하기에 식사까지 미루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일까?

종은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라고 말한다. 자신은 신랑도 아니고, 신랑의 아버지도 아니며, 그렇다고 그 집안의 명망있는 사람도 아니다. 그는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한다. 자신은 주인이 보내서 온 종으로 어떠한 의사 결정권도 없으며 단지 주인의 일을 대신 하고 있는 자라는 것이다. 여기서 어떤 이는 종의 겸손을 배워야 한다고도 하는데 종이 겸손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종이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하는데 겸손이 왜 말인가?

사도 바울은 주옥같은 서신인 로마서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한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 (δούλος)다. 둘로스는 그야말로 종 중에서도 제일 천한 종이다. 당시에 둘로스는 ‘살아있는 재산’ 취급을 받았다. 인격도 없고 자신의 의견도 없이,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자격도 없고 일의 효율을 따져서도 안 된다. 그것이 종의 정체성이다. 히브리어로 종은 ‘에베드’ (עֶבֶד)다. 에베드는 일하는 자이다. 땀 흘려 땅을 파고 농사를 짓는 자가 에베드다. 에베드는 일만 할 뿐 그 일의 결과는 늘 주인의 몫이다. 그 성과물에 참여할 자격조차 부여되지 않는다. 종은 단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자일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사백 년을 ‘에베드’로 살았다. 그들은 죽도록 일만 했지만 그 성과물은 항상 파라오의 것이었다.

그래서 종과 겸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어떤 경우에도 종에게 겸손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을 나와 세상에서의 성공을 보장받은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고 대신 아프리카 오지의 선교사로 가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로 칭송 받는다. 게다가 그런 칭송에도 자신을 낮추면 겸손함까지 갖추었다고 추켜 세운다. 그런데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 어느 날 조용히 선교를 떠나면 별로 관심도 갖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고 폄하하기까지 한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다. 앞서 든 예처럼 하버드를 나와 소위 세상에서 출세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가정해 보자. 사실 그것은 내려놓음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다. 복음을 알고 나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것도 아니며 단지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임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다. 진정한 존재의 자각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 한 것은 그가 이제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지 대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말이다. 우리는 어떤가?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는 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여겨 기도라는 미명하게 그분을 종처럼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로 인해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자격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 차례다. 우리는 주의 명을 받아 그 명령대로 행하는 종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만 누리려는 것은 어린 아이 신앙에 불과하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그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성도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도... 과연 당신은 누구인가?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실이 당신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종의 간증”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24:31~49)

목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종’이라 소개한 늙은 종은 자신이 그곳에 와서 이렇게 이들과 마주 앉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현재 거취부터 설명하기 시작한다.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잘 살고 있던 고향을 등지고 먼 땅 가나안으로 떠났다. 상상컨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갑자기 이것저것 주변정리를 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어느날 여호와라는 신으로부터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을 들었다고 하면서 말이다. 아마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아브라함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떠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설로 남게 되었다. 라반은 자신의 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을 수도 있다. 종은 그들이 그렇게도 궁금해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 했다.

“여호와께서 내 주인에게 큰 복을 주셨고, 그래서 그는 매우 부유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양과 소, 은과 금, 남종과 여종,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창 24:35).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고 야반도주 하듯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 바로 그 여호와의 도움으로 부유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많은 분들은 이 구절을 일반화 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아브라함처럼 부유하게 된다고 믿으며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말이다. 우리는 결코 아브라함의 부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된다. 사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메소포타미아에서 계속 살았다면 나홀의 도시처럼, 아브라함의 도시를 만들어 더 부유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려는 것이 아님은 더더욱 명백해진 셈이다.

종이 두 번째로 언급한 것은 사라와 이삭이다. 그가 그들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이렇다.

“내 주인의 아내 사라는 늙은 나이에 내 주인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내 주인은 그의 아들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창 24:36).

종의 증언에서 주목해야 할 사람은 이삭이 아니라 사라다. 사라가 아닌 사라였을 때 그녀는 남편 아브람을 따라 고향을 떠나왔다. 데라의 아들들 중 하란과 나홀은 다 아이가 있었는데 유독 아브람에게만 아이가 없었다. 그 아내 사라가 불임 여인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사래가 조선 시대의 여인이었다면 철저히 해당되어 쫓겨날 수도 있었다. 그 사래가 사라가 되고, 드디어 아이를 낳았다. 그것도 경수가 끊어진 늙은 나이에 말이다. 종의 이 증언은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홀의 후손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오히려 받아들이기 쉬웠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었다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부자가 된 셈이니 말이다. 자

신들은 자신들만의 성을 쌓고 잘 살고 있었으니 부자가 된 아브라함이나 그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하지만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전혀 다르다. 아마도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을 것이다. 사라가 아이를 낳은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것이야말로 오직 여호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한 종은 자신이 그곳에 오게 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의 이야기의 골자는 이 모든 일을 기획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불임인데다 늙어 소망이 끊긴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의 이야기는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진실되게 말하고 있다. 그의 결론은 이것이다. 만약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끄신 분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이 혼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혼인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라반을 비롯한 모인 모든 사람들도 종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을 것이다.

요즘은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전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로 어떻게 인도되었으며 죄인이었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는지를 가감없이 진실하게 설명하기만 하면 된다. 자신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 화려한 언변술이나 높은 수준의 지식, 또는 오랜 신앙 경력이 필요하지 않다. 죄인이었던 자신이 어떻게 구원 받아 의인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자기를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셨는지를 설명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전도다. 그 외에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종이 라반과 그의 가족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도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것인지 그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을 얻기를 바란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적이 있나요? 그 이야기를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했나요?

신랑이 준비한 예복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24:50~60)

- (50 절)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וַיַּעַן לָבָן וּבְתוּאֵל וַיֹּאמְרוּ)
 이 일은 여호와로부터 나왔습니다. (מִיְהוָה יָצָא הַדְּבָר) (לא נוכל דבר אליך רע או־טוב)
 우리는 당신에게 좋고 나쁨을 말할 수 없습니다.
- (51 절) 보십시오. 당신 앞에 있는 리브가를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הֲנִי־רֹבֵקָה לְפָנֶיךָ קַח גִּלְיָה)
 그녀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וַתְּהִי אִשָּׁה לְבָן־אֶלְזָבֶיךָ כַּאֲשֶׁר דִּבֶּר יְהוָה)
- (52 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했습니다.
 (וַיִּהְיֶה כַּאֲשֶׁר שָׁמַע עֶבֶד אַבְרָהָם אֶת־דְּבָרֵיהֶם וַיִּשְׁתַּחוּ אַרְצָה לַיהוָה)
- (53 절) 그 종은 은과 금으로 된 장신구와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었습니다.
 (וַיּוֹצֵא הָעֶבֶד כְּלֵי־כֶסֶף וְכֵלֵי זָהָב וּבְגָדִים וַיִּתֵּן לְרֹבֵקָה)
 그녀의 오라버니와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었습니다. (וּמַגְדָּנָתָּ וְיִתְּן לְאִחֶיהָ וּלְאִמָּ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종의 간증이 끝났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브두엘은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다. 리브가의 혼인은 누가 보아도 인간의 일이 아니었다. 65년전 아브라함을 불러냈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주체임을 그들 모두가 알게 되었다. 그 하나님이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택하셨고 그 일로 아브라함의 종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들은 종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일은 여호와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좋고 나쁨을 말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당신 앞에 있는 리브가를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창 24:50~51).

“이 일은 여호와로부터 나왔다.”에서 ‘일’은 히브리어로 ‘다바르’(דָּבָר)다. 여기서는 다바르를 일로 번역했지만 많은 경우 ‘말씀’으로도 번역된다. 이 상황에서는 둘 다로 번역 가능하다. 지금까지 종이 한 말 전부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도 되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혼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뜻도 된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잘 모르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을 이 순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불임인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신 전능하신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다. 종이 이삭의 신붓감을 구하러 오는 과정 중에 일어난 모든 일은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오직 여호와의 신실하심으로만 가능하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추진하시는데 하찮은 인간들이 무슨 토를 달 수 있겠는가?

이제 이삭의 신붓감은 리브가로 결정되었다. 이 혼인에서 기획자도 하나님이시고 일하시는 주체도 하나님이시다. 인간들은 잘 짜여진 각본대로 열심히 연기만 한 셈이다. 대를 이어 언약의 자녀를 낳게 될 리브가와 이삭의 혼인을 위한 모든 일이 마무리 되어간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을 확인한 종은 이제 이 혼인을 확약하고 증거할 마지막 예물을 꺼낸다. 그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

브가에게 주었다. 은금 패물은 혼인예물이고, 옷은 이삭의 신부가 되었다는 증거물이다. 신부는 친정 집에서 입었던 옷을 벗고 신랑이 준비해 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옷은 리브가가 더 이상 이집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랑에게 속한 자임을 확인시켜주는 특별한 증표이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이 주는 옷을 입고 산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인 옷을 즐겨 입고, 어떤 이들은 명예의 옷을 입고자 노력하며, 어떤 이들은 부와 사치의 옷을 입고 뽐내고 싶어 한다. 그와는 달리 어떤 이들은 도덕적으로 수치스런 낙인이 찍힌 옷을 입고 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가난이라는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아가기도 한다. 이 세상의 옷은 그 자체로 인간들을 빈부와 귀천, 강자와 약자로 나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세상의 옷들을 벗어야 한다. 누더기 옷과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옷을 벗어 던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멋져 보이고 남들에게 칭송을 받는 옷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다 벗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스스로 의복을 준비하려 하고, 또 스스로 준비한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쓴다. 그런 애씀은 그런대로 이 세상에서는 멋져 보이고 존경스럽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예수님 앞에 서면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가 주신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렇게 선언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니라”(갈 3:26~29).

리브가는 이삭과 합하기 위해 친정에서 입고 살던 옷을 벗고 이삭이 준비해준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다.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 세상의 지위나 명예나 부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얼마나 의롭게 살고 근검절약하며 살았는지, 열심히 노력해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만 보신다. 간혹 교회에서까지 자신의 세상적인 지위나 자기가 쌓아온 의를 자랑하는 분들이 있다. 그럴 때마다 세상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는 이들은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설 엄두도 못낸다. 게다가 세상에서 실수하고 넘어져 더럽혀진 채로 나온 사람들은 늘 승리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노라고 당당하게 간증하는 분들 앞에서 주눅이 들게 마련이다. 아마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교회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용서받는 곳이고, 거지나 사자와 식탁에 함께 앉아 만찬을 나누는 곳이며, 세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가진 것이 아닌가?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해 당신을 받아주신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기준은 인간의 도덕적 잣대가 아니다. 그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아니냐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리스도의 옷 위에 세상의 옷을 함께 걸쳐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왜 당신은 세상이 주는 옷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과감한 결별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24:54~60)

- (54 절) 종과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וַיֹּאכְלוּ וַיִּשְׁתּוּ הוּא וְהָאֲנָשִׁים אֲשֶׁר-עִמּוֹ וַיִּלְּנוּ)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וַיֹּאמְרוּ בַבֶּקֶר וַיֹּאמְרוּ)
 나를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십시오. (שְׁלַחְנִי לְאֲדֹנָי)
 (55 절) 그녀의 오라버니와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וַיֹּאמְרוּ אָחִיהָ וְאִמָּהּ)
 그소녀가 우리와 함께 며칠 또는 10 일을 머물도록 허락하십시오. 그후에 그녀가 갈
 것입니다. (תֵּשֵׁב הַנְּעָר אִתָּנוּ יָמִים אוֹ עֶשְׂרִי אֶחָד תֵּלֶךְ)
 (56 절) 종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וּ אֲלֵהֶם)
 나를 방해하여 늦게 하지 마십시오. (אַל-תְּאַחֲרוּ אִתִּי)
 여호와께서 나의 여정이 성공하도록 하셨습니다. (וַיהוָה הִצְלִיחַ דַּרְכִּי)
 나를 보내십시오. (שְׁלַחֵנִי)
 내가 나의 주인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וְאֵלֶיךָ לְאֲדֹנָי)
 (57 절) 그들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וּ)
 우리가 그소녀를 불러서 그녀에게 물읍시다. (וְנִקְרָא לַנְּעָרָה וְנִשְׁאַלָהּ אֶת-פִּיהָ)
 (58 절)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וַיִּקְרְאוּ לְרִבְקָה וַיֹּאמְרוּ אֵלֶיהָ)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הֲתֵלְכִי עִם-הָאִישׁ הַזֶּה)
 그녀가 말했습니다. (וַתֹּאמֶר)
 저는 가겠습니다. (אֵלֶיךָ)
 (59 절) 그래서 그들은 그누이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사람들과 함께 보냈습
 니다. (וַיִּשְׁלְחוּ אֶת-רִבְקָה אֶחָתָם וְאֶת-מְנַקְתָּהּ וְאֶת-עֶבֶד אַבְרָהָם וְאֶת-אֲנָשָׁיו)
 (60 절) 그들이 리브가를 축복하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וַיְבָרְכוּ אֶת-רִבְקָה וַיֹּאמְרוּ לָהּ)
 우리 누이여, 너는 수천만이 되기를, (אֲחֻתֵנוּ אַתְּ הִי לְאַלְפֵי רִבְבָה)
 너의 자손이 너를 증오하는 자들의 성문을 차지하기를, (וַיִּרְשׁ וְרָעַד אֶת שַׁעַר שַׁנְאָיו)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모든 일이 순조롭게 끝났다. 아브라함의 종과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은 융숭한 대접을 받고 하룻밤을 신
 뭇집에 머물렀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단잠을 잤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자기 전에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 것이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될 수 있던 말인가? 분명 그들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며 행복해 했으리라.

아침이 되었다. 종은 서둘러 집을 떠나고자 했다. 혼인이 성사된 지 겨우 하룻밤이 지났을 뿐이다. 불
 과 어제 저녁 무렵만 하더라도 리브가는 물론 그녀의 가족 모두는 어느 때와 다름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리브가는 늘 하던대로 저녁 준비를 위해 물을 길으러 우물가로 갔다. 그리고 종을 만났다. 그

일이 리브가의 집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마음의 준비도 계획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날이 밝자마자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겠다고 한다.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과 어머니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잠시라도 더 사랑하는 리브가와 함께하기를 원했다.

“그소녀가 우리와 함께 며칠 또는 10 일을 머물도록 허락하십시오. 그후에 그녀가 갈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 완강했다. 그는 일말의 여지를 주려 하지 않았다. 그의 대답은 너무도 사무적이고 냉정하며 다소 비정하기까지 하다.

“나를 방해하여 늦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여정이 성공하도록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나의 주인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종은 “나를 방해하여 늦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한다. 히브리어로 ‘알-트아하루 오티’라는 말은 매우 강력하고 거칠기까지한 표현이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으니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다. 종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막아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말투처럼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이미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니 더 이상 타협하려 들지 말라는 말이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차분하고 공손하며, 진솔한 간증을 했던 그 종이 맞나 싶을 정도다. 마치 뒷간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종이 이렇게 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인간적으로야 백번이고 신부측 요구를 들어 줄 수 있고 또 그러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은 종이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종의 말을 들은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는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래도 그들은 얼마간이라도 리브가와 함께하고 싶어 꾀를 내었다. 신부인 리브가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것이다. 적어도 리브가라면 집에 며칠이고 더 머물러 있겠다고 말할 거라 믿었다. 그러나 리브가의 대답은 의외였다. 지금 당장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집을 떠나 정혼한 신랑 이삭에게로 가겠다는 거였다.

“저는 가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다. 많은 독자들은 리브가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야박하고 매정한 여자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 곁을 하루아침에 떠나겠다고 하니 말이다. 하지만 리브가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리브가 자신도 종의 말처럼 어떤 타협도 할 수 없고, 그의 말대로 따라야 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녀 역시도 종의 말대로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이 순리다. 세상의 도리로는 비난받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올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곧 그를 따랐듯이 말이다. 인간의 도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리브가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정든 집,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온 익숙한 곳으로부터 영원한 결별을 하게 된다. 리브가가 가는 시집은 친정과 가까운 곳이 아니다. 그는 정든 고향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신랑이 있는 머나먼 이국 땅 가나안의 네게브로 가야 한다. 가족들은 리브가를 그렇게 떠나 보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리브가가 그후에 친정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다. 리브가와 그 가족들은 그야말로 생이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불과 하루 전만 하더라도 리브가는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종이 그곳을 찾지 않았다면 오늘도 그녀는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저녁이면 물동이를 지고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족을 위한 저녁을 준비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당장 오늘 저녁부터는 물을 길어오는 일도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 그렇게 리브가는 익숙한 자신의 일상과 이별을 고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전혀 새로운 삶, 하나님의 백성의 아내로서의 삶, 선택된 자의 어머니로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종의 인도로 그 옛날 그녀의 시어머니 사래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그녀도 낯선 땅 가나안으로 향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우리 역시도 익숙한 세상의 것들로부터의 이별해야만 하는 가혹한 결단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세상과 그리스도를 함께 섬길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이다. 그렇다고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있는가? 아직도 익숙한 세상에 남아 열흘이라도 말미를 달라고 졸라대고 있지는 않는가? 마음이 쓰리고 아프지만 과감하게 세상의 익숙한 것들과 결별을 선언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말이다.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세상 가치관에서 떠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이 힘들고 고단하게 느껴질 때는 없습니까?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24:61~67)

- (61 절) 리브가와 그녀의 여종들과 함께 일어나 낙타들에 올라 탔고, 그 사람을 따라 갔습니다.
 (וַתָּקָם רַבְקָה וְנַעֲרֹתֶיהָ וַתַּרְכְּבֶנָּה עַל-הַגְּמֵלִים וַתִּלְכְּנָה אַחֲרֵי הָאִישׁ)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וַיִּקַּח הָעֶבֶד אֶת-רַבְקָה וְנִלְוָה)
- (62 절) 그 때 이삭은 브엘라해로이에서 돌아왔고,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וַיֵּצֵאקָ כָּא מִבְּוֹא בְּאֵר לַחֵי רֹאֵי וְהוּא יוֹשֵׁב בְּאֶרֶץ הַנֶּגֶב)
- (63 절) 이삭은 저녁이 되어 갈 때 묵상하기 위해 들로 나갔습니다.
 (וַיֵּצֵא יִצְחָק לְשׂוּחַ בַּשָּׂדֶה לַפְּנוֹת עָרֶב)
 그는 그의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그때 낙타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וַיֵּשֶׂא עֵינָיו וַיֵּרָא וְהִנֵּה גְמֵלִים בָּאִים)
- (64 절) 리브가가 그녀의 눈을 들어 이삭을 보았습니다. (וַתִּשָּׂא רַבְקָה אֶת-עֵינֶיהָ וַתִּרְא אֶת-יִצְחָק)
 그녀는 낙타에서 내렸습니다. (וַתִּפֹּל מֵעַל הַגְּמֵל)
- (65 절) 그녀가 그 종에게 말했습니다. (וַתֹּאמֶר אֶל-הָעֶבֶד)
 우리를 만나기 위해 들에서 걸어 오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מִי-הָאִישׁ הַלֹּזֵה הַהֶלֶךְ בַּשָּׂדֶה לַקְּרֹאֲתָנוּ)
 그 종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 הָעֶבֶד)
 그는 내 주인입니다. (הוּא אֲדֹנָי)
 그녀는 면사포를 가지고 자신을 가렸습니다. (וַתִּקַּח הַצֹּעִיף וַתַּתְּכֶס)
- (66 절) 그 종이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을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וַיְסַפֵּר הָעֶבֶד לְיִצְחָק אֵת כָּל-הַדְּבָרִים אֲשֶׁר עָשָׂה)
- (67 절) 이삭은 그녀를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갔습니다. (וַיְבִיֶהָ יִצְחָק הָאֵלֶּלֶה שָׂרָה אִמּוֹ)
 그는 리브가를 취했고,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וַיִּקַּח אֶת-רַבְקָה וַתְּהִי-לוֹ לְאִשָּׁה וַיֶּאֱהָבֶהָ)
 이삭은 그 어머니 이후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וַיִּנְחַם יִצְחָק אַחֲרֵי אִמּוֹ)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 당시 이삭은 브엘라해로이에서 돌아와 네게브 지역에 거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그는 들로 나갔다. 성경은 그가 묵상을 하러 들로 나갔다고 했다. 어떤 분들은 이 당시에도 이삭이 큐티를 했다거나 습관처럼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삭이 들로 나간 이유는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서 그랬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집을 떠난 종이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소식이 없었다. 요즘처럼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이메일을 보낼 수도 없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 외엔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삭의 마음은 점점 요동을 쳤을 것이다. 때론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할 꿈을 꾸다가도 어느 때엔 낙타 등에 실망이라는 짐을 가득 싣고 힘없이 터덜터덜 돌아오는 종의 꿈을 꾸고 화들짝 놀라 잠을 깰 수도 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다. 묵상을 위

해 밖으로 나간 그의 행동에서 이삭이 얼마나 초초한 마음으로 종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그는 눈을 들어 멀리 쳐다보았다. 행여나 종의 일행이 무사히 일을 마치고 돌아올런지 이제나 저제나 기대하면서 말이다. 그때 멀리서 낙타들이 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에서 이삭의 신부를 구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덕분에 가나안에서 사는 동안 그들과 이웃해 살던 모든 또래 여자들은 이삭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던 중 어머니 사라가 죽었다. 이삭은 삶의 의욕을 잃었다.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 3년이 지났다. 아버지는 아들 이삭을 장가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종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은 아들 이삭이 보기에 너무 무모해 보였을 것이다. 신랑도 없이 신랑 아버지가 보낸 종의 말만 믿고 그 먼길을 떠나 여기까지 올 여인이 있거나 하겠는가? 아마도 이삭은 종이 신부를 데리러 떠난 후 하루도 빠짐없이 들로 나갔을 것이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만큼 이 일이 자신과 집안에 매우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상으로 이삭은 종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매일 저녁마다 들로 나갔다. 그리고 최대한 멀리까지 보이는 곳에 서서 어두워질 때까지 한없이 바라보고 있다가 장막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드디어 바라던 날이 왔다. 멀리서 오는 한 무리의 낙타떼가 눈에 들어 왔다. 그 낙타떼는 점점 이삭이 서있는 곳으로 다가 왔다. 희미하던 낙타떼의 윤곽이 뚜렷해졌다. 한눈에 보아도 종의 일행임에 틀림이 없었다. 이삭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마중나갔다. 리브가 역시 눈을 들어 쳐다보았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이삭을 발견한 순간 그녀는 낙타에서 내렸다. 그가 신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낙타에서 내린 후 종에게 물어 보았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들에서 걸어오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종이 대답했다. “그는 내 주인입니다.” 리브가는 종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면사포로 자신을 가렸다. 신부로서의 예를 갖춘 것이다.

리브가가 예를 갖추고 있는 동안 종이 이삭에게로 왔다. 종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삭에게 소상하게 이야기했다. 이삭은 너무 기뻐할 것이다. 그동안 희미하게 자신을 덮고 있던 질은 안개가 순식간에 걷히고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이 그 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신부를 본 그의 심장은 방망이질을 해댔을 것이고, 종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리브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을 것이다.

이삭은 리브가를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갔다. 사라가 죽은 후 안주인의 자리가 비어있던 아브라함의 집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로 인해 그 자리가 채워졌다. 성경은 친절하게도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삭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찾아 온 슬픔, 우울감, 고독감, 상실감을 리브가를 맞이함으로써 극복했다. 리브가는 이삭의 돕는 배필이자 위로자가 되었다. 이로써 안주인 사라의 자리는 공식적으로 리브가에게 넘어갔고, 리브가는 사라가 겪었던 해산의 고통을 고스란히 물려 받게 된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의 자녀를 쉽게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리브가로 인해 이삭은 다시 힘을 얻고 웃을 수 있었다. 그렇게 제2대 족장 시대가 열렸다.

묵상을 위한 질문

이삭이 맘 졸이며 신부를 맞이하는 모습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일까요? 당신은 그분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